

# '아이 낳기 좋은 근무환경 만들기' 갈 길 멀다

### 광주은행 '10시 출근제' 확대... 혁신도시, 탄력근무제 등 광주·전남 기업들, 일·가정 양립 지원책 내놓고 있지만 지역민 5.7% '이상적 자녀수 0명'... 현실적 지원 늘려야

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일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유치원생과 초·중·고교생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'돌봄 공백' 걱정에서 한숨을 놓게 됐다. 광주·전남 기업계는 유연근무제도와 6시 PC 전원차단(오프)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'아이 기르기 좋은 근무환경'까지는 갈 길이 멀다. 2일 통계청 '생활시간조사'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광주시민들이 가족과 가구를 돌보

기 위해 하루 평균 들이는 시간은 1시간 34분으로, 경북(1시간 25분)과 부산(1시간 32분)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짧았다. 광주지역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데 하루 1시간 46분을 들이지만 남성은 그보다 33분 가량 짧은 1시간 13분에 그쳤다. 광주시가 지난 달 말 발표한 '광주시 사회조사' 결과에 따르면 '이상적인 자녀 수'를 묻는 질문에 '0명'이라고 답한 비율이 5.7%에 달했다. 이 비율은 15-19세(16.8%)와 20대(11.1%)에

서 가장 높았다. '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' 1순위에 대해서는 31.0%가 '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'를 꼽았다. ▲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 18.2% ▲유연근무제 확산 15.3% ▲임신·출산 지원 확대 13.3% ▲직장 내 보육·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11.1% ▲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5.5% ▲출산·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5.4% ▲기타 0.2% 등이 뒤를 이었다. 광주시는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 동안 4905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였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2.2%이다.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나타내는 지역민들 지표는

녹록하지 않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자는 '워라밸'(Work-life balance) 문화를 확산하려는 기업계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. 광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초·고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'자녀돌봄 10시 출근제'를 시행한다.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 9월 송중옥 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4년째 이 제도를 시행하며 기업문화로 자리잡게했다. 지난해까지는 한 달 동안 '10시 출근'을 추진했지만 '워라밸' 추세를 맞춰 올해는 두 달로 확대했다. 이에 따라 지난해 89명에서 올해는 95명으로 참여 직원이 늘었다. 참여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순연돼,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.

송 행장은 "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·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매년 '자녀돌봄 10시 출근제'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"며 "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과 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, 더불어 광주·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해 시행하고 있는 좋은 기업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기업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을 받아 지난해 탄력근무제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. 지난해 13개 기관의 '시차 출퇴근형' 탄력근무제 이용자는 6889명으로, 전년보다 1128명(19.6%) 증가했다. 2020년 한 해 동안 재택근무 인원은 2만2989명으로, 전년의 3832배 수준으로 불었다. 이는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재택근무를 한 번이라도 한 인원이 반영됐으며, 중복 재택근무 횟수는 기재되지 않았다. 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올 첫 참외 맛보세요 2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이 올해 첫 수확한 성주산 참외를 선보이고 있다. 봄 참외는 생육 기간이 길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 <롯데쇼핑 제공>

## 광주 광공업 생산 회복세... 소비는 '부진의 늪'

### 호남통계청 '1월 산업활동동향' 광공업 생산 광주 9.0%·전남 1.8% 증가... 소비 '두 자릿수' 감소

올해 1월 광주 광공업 생산액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전남도 증가로 돌아섰다. 하지만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두 지역 모두 10% 넘게 감소했다.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'2021년 1월 광주·전남 산업활동동향'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광공업 생산액(생산지수)은 1년 전보다 광주 9.0%, 전남 1.8% 증가했다. 매년 1월 성장세를 비교하면 광주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월(11.0%)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 지난해 1월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1.6% 떨어졌다. 광주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4월 감소율 21.3%를 기록한 뒤 석 달 동안 '마이너스' 성장을 이어갔다. 같은 해 7월 광공업 생산이 10.8% 성장하면서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'플러스' 성장을 지속했다.

전남은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2.7% 감소한 이후 올 1월 증가로 돌아섰다. 전국 규모 광공업 생산은 7.5% 증가했고, 경북(18.0%)과 제주(11.6%), 충북(11.4%), 세종(10.0%), 인천(9.9%), 경기(9.3%), 광주(9.0%), 울산·충남(각 6.4%), 대구(6.1%), 전북(3.5%), 전남(1.8%), 경남(1.5%), 대전(1.4%)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. 서울(-6.0%)과 부산(-4.8%), 강원(-2.3%) 등 3개 시도만 지난 달 '마이너스'를 나타냈다. 광주 광공업 생산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달 냉장고·커피터·납축전지 등 '전기장비' 업종이 40.3%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 담배(93.5%)와 자동차(5.6%)도 증가세를 나타냈다. 반면 탄산음료(-52.9%)와 공기정정기 등 기계장비(-6.8%), 식료품(-13.9%)은 생산이 전년보다 줄었다.

전남 1월 업종별 생산은 전기·가스·증기(13.0%)와 기계장비(12.6%), 기타운송장비(16.1%)는 늘고, 화학제품(-7.7%), 비금속광물(-5.7%), 의약품(-33.8%)은 생산이 줄었다. 광주·전남 광공업 생산의 뚜렷한 회복세에도 대형소매점 판매는 코로나19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. 지난 달 대형소매점 판매액(지수)은 1년 전보다 광주 10.6%, 전남 11.2% 감소했다.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(-7.8%) 보다 심각하다. 광주는 11월(-6.4%)에 이어 12월(-10.1%), 올해 1월(-10.6%) 등 석 달 연속 '마이너스' 성장을 이어가며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됐다. 전남지역도 지난해 12월에는 1.8% 증가를 보였지만 지난 달 들어 '두 자릿수'로 뚝 떨어졌다. 두 지역 모두 가전제품 소비는 늘었지만 화장품과 의복, 음식료품 지출은 감소했다. 광주 건설수주액은 23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.1% 감소했다. 공공부문은 기타공공단체와 공기업 등의 감소로 98.9% 줄었고, 민간부문도 부동산업, 기계장치 제조업 등의 감소로 35.5% 감소했다. 전남 건설수주액은 673억원으로 88.4% 감소했다. 공공부문은 29.6%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93.8% 줄었다. 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### 세일콜 "지역 농수축산물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"

성태근 광주본부세관장

"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" 2일 취임한 성태근 제40대 광주본부세관장은 "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"고 밝혔다. 이어 "관세국경관리는 변하지 않는 세관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"라며 "마약과 불량식품 등 국민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것은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 전북 정읍 출신인 성 본부세관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평택지청세관장, 관세청 통관지원국장,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,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. /박기용 기자 pboxer@

###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

↑ 코스피	3043.87 (+30.92)
↑ 코스닥	923.17 (+9.23)
↑ 금리(국고채 3년)	1.021 (+0.001)
↑ 환율(USD)	1124.00 (+0.50)

#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

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!

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.

소비자상담실 080-234-6588

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%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